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만들고 옷을 판매한다, 이러한 매일의 활동을 통해 유니클로는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나간다'는 것을 지향합니다. 세계를 바꾸려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그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개인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는 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이 활약하기 위한 자유와 장소를 사회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면 개인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러한 개인과 사회의 순환이 사회를 기쁘게 하고 개인을 풍요롭게 해 줄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를 감수하며, 꿈을 갖는 것조차 벽찬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나와 무관한 일들은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여성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지속적인 동일본 대지진 부흥 지원인 '유니클로 부흥 응원 프로젝트', 전 세계 아이들에게 8가지 유니크한 활동으로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클로즈 포 스마일'은 모두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세계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는 힘이라 믿고 유니클로가 실천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옷의 힘'에 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본 책자에 첨부된 엽서나 아래 홈페이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astretailing.com>
<http://www.uniqlo.com/kr/csr/>

옷의 힘 vol.12 2014년 5월 발행 발행처: 주식회사 패스트 리테일링 www.uniqlo.com/kr/csr/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간다 —
특집 미래를 열기 위하여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간다

옷의 힘

12

CONTENTS

- 03 아시아여성대학이 세계를 바꾸는 날
- 09 유니클로 부흥 응원 프로젝트
계속한다. 옷의 힘으로
- 12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프로젝트
'클로즈 포 스마일(Clothes for Smiles)'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미래를 열기 위하여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곧바로 시작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것이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흠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며, 수확은 다음 세대에게 -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과제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유니클로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이

아시아여성대학이 세계를 바꾸는 날

빈곤층이 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방글라데시에 주목받는 대학이 탄생했다.
아시아여성대학. (Asian University for Women)
아시아에서 중동까지 16개국의 여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종교와 문화의 벽을
넘어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01

요구되는 자세는 '열려 있을 것'

아시아여성대학에서의 처음 1년간은
기숙사 공동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그녀들은 장래에
어떤 꿈을 그리며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크리티 마난다(Akriti Manandhar) 양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출신, 아시아여성대학 일반교양 과정 1학년

‘여자아이한테 공부시켜줘야 무슨 쓸모가 있어?’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공부를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도시에서 태어나느냐, 시골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네팔 아이들의 운명은 확연히 갈립니다.

시골에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걸어서 몇 시간이나
들여 학교에 다니는데,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급식으로 배탈이 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아이를 어떻게 보내냐, 하는 부모도 당연히
있지요.

네팔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말도 나옵니다. 장래에는 결혼 상대의 집에
들어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입니다. 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
나르는 것은 주부의 일. 그런 환경에 사는 여자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줘야 무슨 쓸모가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지방에 사는 여성의 식자율은 남성과 비교해
몹시 낮습니다.

다행히 저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정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 덕분에 학비는 전액 장학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공부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봉제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여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공계열
이나 경영학 등, 실천적인 것, 곧바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철학 등을 폭넓게 공부하는 리버럴 아트
(liberal arts)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파였습니다. 네팔에서는 곧바로 쓸모가 있는 학문
이외에는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럴 아츠를 배우고 싶다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시아여성대학이 좋을 거라고 귀땀해 준 사람은
저널리스트로 세상의 움직임에 정통한 제 숙모님이
셨습니다. AUW라는 이름을 듣고 얼마 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AUW의 코디네이터가 와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숙모님
말씀대로 배우고 싶은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았고,
동아리 활동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
종교와 언어, 문화가 다른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합니다. 저도 4명의 동급생과 한방을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대학에서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열려
있을 것'이지요. 학문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타인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AUW에 들어가서는 리버럴 아츠뿐만 아니라

정치학이나 경제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배운 다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어, 미아가
될 것 같아요. (웃음)

다만 어떠한 학문을 공부하든, 최종적으로는 네팔에
돌아가 여성의 지위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치가이든 저널리스트이든, 여성이 커리어를
쌓는 사례가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제 손으로 바꾸고 싶어요.

손바닥의 모양이요? 아~ 이건 멘디(Mendi). 힌두교
문화권 여성은 결혼식 같은 경사스러운 자리에 참석할
때, 손이나 다리에 헤나 염색으로 무늬를 그려
축하하거든요. 내일 같은 방의 방글라데시 학생이 친척
결혼식에 참석해서, 다른 친구들 손에도 덩달아(웃음)
멘디를 그려 준 거예요.

저마다의 문화 배경을 공유할 수 있으면 사물을 보는
시점이 다면적이 됩니다. 자신이 선 장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키울 수 있지요. 네팔에 돌아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다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과의
교류는 계속할 거예요.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01

가르치는 입장에서조차 아시아여성대학은 특별한 장소

16개국에서 모인 학생들. 기숙사 생활이 원칙. 영어로 수업. 다양한 개성을 지닌 학생들을 하나로 통솔하는 데는 교원들의 열의도 한몫을 담당합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보이는, 아시아여성대학의 지향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파히마 아지즈(Fahima Aziz) 아시아여성대학 부총장 공학이 아닌 여대라는 것의 의의

풍요롭고 생산적인 인생을 위한 열쇠는 뭐니뭐니해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많은 여성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강요받고, 그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가능성, 재능을 발굴한다거나 사회 속에서 충분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지요.

이제까지 여성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시작하려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환경' '신뢰와 경의를 바탕으로 다루어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공학이 아닌 여성을 위한 대학의 의의가 몹시 큼니다. 미국의 여자대학에서 공부한 저 자신이 그렇게 느낍니다.

아시아여성대학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배려심 있는 시민이 되고 윤리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16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제 나라로 돌아가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그녀들이 졸업 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귀성한 학생이 다민족 국가인 고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레베카 하트만(Rebecca Hartmann) 아시아여성대학 학부장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한다

전교생 501명 중 471명은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친구가 같은 방이 되도록 방 배정을 해, 대학의 공통어인 영어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문화와 종교,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AUW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자세에 관해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는 각 계절의 문화제도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장입니다. 공부 시간 틈틈이 짬을 내어 민족의상을 입고 전통무용 연습을 한다거나 무대에서 발표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함양됩니다.

모두가 여성이기에, 손을 내미는 것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배우는 자세도 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자대학만의 이점이 있지요.



마가렛 크르웬스카(Margaret Kruszezka) 씨 아시아여성대학 문장기법 담당 디렉터 겸 아시아 연구 조교수 압박감과 치열한 공부를 넘어선 미래에서 기다리는 것

대다수 학생이 AUW에 오지 않았더라면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녀들은 이를 충분히 자각합니다. 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영어 문장 기법을 배우는 것은 선택받은 학생들입니다. 여기에서는 100%의 학생들이 출석합니다. 영어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자각이 있음은 물론, 그녀들은 남다르게 의욕적이며, 주어진 기회를 일단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열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압박감도 크지요. 그래서 그녀들은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동기에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1

유니클로는 아시아여성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방글라데시에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아시아여성대학이 탄생한 지 약 6년.
유니클로는 장학금 제공을 통해 아시아여성대학을 지원합니다.



유니클로가 지원하는 장학생들

아시아여성대학(AUW)은 2008년 방글라데시 제2
의 도시 치타공에 설립되었습니다. 치타공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항만도시라는 성격상 다민족, 다종교라는
다양성을 띠면서 무역과 산업, 교육의 중심지로서
번성해 왔습니다.

현재의 치타공을 있게 한 역사적인 다양성은, 바로
아시아 전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문화, 언어, 빈곤의 벽을 뛰어넘어, 더욱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
아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의 문제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책은 교육입니다.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이 자란 고향에서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뒷받침해 주는 공동의 기반은

교육을 통해 길러질 것입니다.

AUW는 5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배출
합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이 당연하지 않은 환경에서 온
진학자가 많고, 전교생의 94%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약 60%가 전액 장학금 수급자입니다.

유니클로는 면접으로 선발된 학생 2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 5년간 100만 달러(약 1억 엔)를 기부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를 통해, 의욕 있는 여성 누구나
에게 개인의 경제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리더 육성을
지원합니다.

유니클로는 앞으로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여성을
육성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대가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가 열린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
니다.

02

유니클로 부흥 응원 프로젝트 계속한다. 옷의 힘으로

유니클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활동을 개시,
젊은이들의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그들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니클로 점포를 활용한 직장 체험을 비롯하여
피해지의 젊은이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유니클로 이와키 오나하마점에서
직업 현장 체험을 하는 후쿠시마 현립
후타바 고등학교의 다카다 슌스케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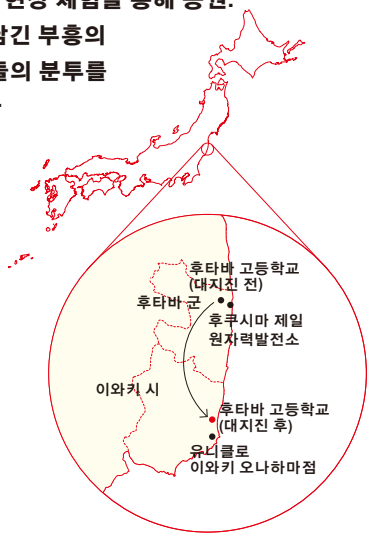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02

후쿠시마 현의 고등학생이 도전 지역을 위한 점포 만들기

후쿠시마 현립 후타바 고등학교 1학년을 직업 현장 체험을 통해 응원. 프로젝트에 담긴 부흥의 소망과 학생들의 분투를 취재했습니다



교실에서 유니클로 이와키 오나하마점으로 '출근'하는 학생들.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이들은 후쿠시마 현립 후타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본래 교사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3.5킬로미터의 위치에 있어, 원전 사고 발생 후에 후타바군에서 이와키시로 학교가 통째로 피난해왔습니다. 지진 전에는 400명 이상이었던 재학생이 지금은 65명, 1학년은 14명입니다. 27종류나 있었던 동아리 활동도 8종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표정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NGO 아드라·재팬의 사업부장인 하시모토 쇼코 씨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먼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어주는 것". 지역사회와 필요한 정보를 있고, 다양한 리소스를 가진 기업과 이어줍니다. 이어진 그곳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유니클로는 고교생들에게도 친근한 옷을 취급하고 있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인 점포도 있습니다. 아드라 재팬과 유니클로가 기획한 것은, 그 특성을 살려 고교

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질적인 원조, 외부로부터의 지원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짊어져 나갈 고등학생이 불안에 억눌리지 않고 앞을 보고 나아가길 힘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 길러 나가기를... 이 프로젝트에는 그런 부흥에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후타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미션은 유니클로 이와키 오나하마점을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점포로 만드는 것. 지역사회의 니즈 조사를 비롯하여 그 고장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어업 관계자를 위한 패션 제안 등, 유니크한 기획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유니클로 도쿄 본부에서의 프레젠테이션에도 도전. 그리고 5개월간에 걸친 프로젝트의 집대성이 점포 스태프의 일원으로 일하는 3일간의 직업 현장 체험입니다.

직업 현장 체험 첫날. 긴장한 나머지 직립 부동으로 굳어진 학생들. 조례에서 연습한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말조차도 매장에 서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설피나마 미소 띤 얼굴로接客을 하며 고객으로부터의 '고맙다'는 말에 힘을 얻고, 유니클로 스태프들이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모습에도 자극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율

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점포에서 교실로 돌아가 교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은 모두 프로젝트를 완수해서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소감을 물어보니,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다른 직업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모두 불안이 함께하는 국면에서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디뎠기에 나올 수 있었던 소리들입니다.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도,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오늘의 이 한 발자국이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미래를 여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담임인 하기하라 유카리 선생님은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교실에서는 본 적이 없는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학생,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도 곳곳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새록새록 느꼈습니다. 이제까지의 지원에 보답하는 의미로도 부디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 주었으면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분투했던 5개월간. 그들이 체험한 것 전부를 든든한 힘으로 바꾸어 미래를 향해 씩씩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NTERVIEW



다카다 슌스케 군

옷을 좋아해서 점포에서의 직업 현장 체험에서 입는 옷은 친구 것까지 코디네이트 했습니다. 고객을 곧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품의 위치를 전부 파악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시가 사야카 양

오빠도 후타바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이와키시로 이전했지만, 저도 이 고등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낮가림이 있어서 점포에서의 직업 체험은 많이 긴장했습니다.



야마구치 하루키 군

조부모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업 관계자를 위한 코디네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디스플레이한 옷에 고객이 흥미를 느끼신 것이 기뻐했습니다.



칸노 로마 군

부모님은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학교는 기숙사에서 다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직업업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 체험 프로젝트'에서
진지하게 옷을 고르는
세르비아의 여자아이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03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프로젝트 '클로즈 포 스마일 (Clothes for Smiles)'

'클로즈 포 스마일'은 유니클로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 씨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을 위해 공동으로 전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모집.
46개국에서 보내준 아이디어는 총 739건에 이르고, 엄정한 심사 결과 8건의 실행이
결정되어 순차적으로 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나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자축구 프로젝트'와 조코비치 씨의 모국인
세르비아에서 개최한 '쇼핑 체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03

소녀에게 살아가는 힘을 '여자 축구 프로젝트' -가나-

축구로 가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의 소녀들을 지원.
소녀들의 성장은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좋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애니까.' 단지 그 이유만으로 교육과 보건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환경에 놓인
소녀들이 있습니다. '여자축구 프로젝트'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녀들이 축구를 통해 동료와
어울리고, 목표를 향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참가하는 역량을 기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유니클로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NGO 플랜 재팬이
협력하여 전개합니다. 유니클로는 자금 지원 외에도
대회 유니폼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남쪽 지구
대회의 결승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가나에서는 소녀들의
초등학교 중퇴율이 60%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채, 너무나도 이른 결혼과 출산을 강요당하는 소녀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습 속에서 사는 소녀들에게 대회는
커다란 무대.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축구는 인기가

높아 많은 사람이 응원하러 옵니다. 큰 기대를 받으며
피치(pitch -경기장)에 서고, 스스로 주역이 되는
경험을 통해 소녀들은 자신감을 얻고 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기프티(Gifty)
양은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뻐했던 것은, 축구를 통해 생기 넘치게 변화하는
저를 보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공부해서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을
응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성적이었지만,
지금은 시합의 중간휴식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 중퇴라든가 원하지 않은 임신 등 사회문제에 대해
계몽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기프티 양은 이제 소극적인 성격으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녀가 아닙니다. 차세대
의 소녀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미래조차도 바꿀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행동력도 갖추었습니다.



난민·국내 피난민 아이들에게 옷의 힘을 '쇼핑 체험 프로젝트' -세르비아-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유니클로 특설 점포에 온 세르비아의 아이들. 그 눈망울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아주 멋진 일'에 기대감으로 반짝입니다.

새 옷을 사러 간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 입어 본다, 그리고 산다. 세르비아에 사는 난민·국내·피난민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체험입니다.

1990년대에 동유럽의 세르비아를 포함한 구유고슬라비아 각국에서 민족분쟁이 발발. 거듭되는 내전으로 많은 주민이 정든 땅을 떠나 난민·국내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간의 대립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2013년 현재, 세르비아 국내에는 약 30만 명의 난민·국내 피난민들이 달혀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한 곳에서 태어난 난민 2세대와 국내 피난민 아이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몰라, 어른 이상으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 유니클로와 난민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 활동 단체인 NPO ACC·희망이 협력하여 기획한 것이 '쇼핑 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구매해서 자신이 꿈꾸는 자기 자신이 되어 봅니다. 그런 경험을 미래에 희망을 품는 것, 곳곳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신감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젝트 개최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시내에 유니클로 특설 점포가 오픈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멋진 일'에 기대를 안고 아이들이 줄줄이 점포에 발을 들여 놓습니다. 점내에는 25종류, 3,200벌의 다채로운 색상의 옷이 즐비합니다. 처음 보는 많은 옷과 고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활기차게 '도바르 단(dobardan- 안녕하세요!)'이라는 인사로 맞이해주는 유니클로 스태프를 보고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점내에 들어선 순간, 환성을 지르는 아이,

저도 모르게 뿔뿔이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프로의 '접객'을 받고, 입어보고, 입점 시에 받은 바우처(voucher-상품권)로 속옷, 재킷, 팬츠, 셔츠의 4종류를 '구매'합니다. 새 옷을 한꺼번에 4가지나 손에 넣는, 난생처음 있는 체험에 당황스러워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시착을 하고 스태프가 거울에 모습을 비추어 주자, 이내 표정이 환해지고 옷은 얼굴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에, 점내의 모두가 어느새 덩달아 웃음 짓게 되었습니다.

옷을 다 고르면 계산대로 가서 바우처로 '구매'합니다. 새 옷으로 풍성하게 부푼 흰 쇼핑백을 품에 안은 모습이 무척이나 소중한 보입니다. 실제로는 무상이지만 '구매했다'는 만족감도 그들에게는 귀중한 체험입니다.

이틀 동안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초대된 이 프로젝트에는,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일본·프랑스·영국·미국의 유니클로에서 스태프가 결집했습니다. 그 밖에도 베오그라드 대학 일본어과 학생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협력 단체 JICA 등,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전원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멋진 하루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의 대단원은 어린이들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막 구매한 옷을 입고, 즐거움이라든가 자신감, 감사의 마음 등, 다채로운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그 모습에 새삼 우리가 느낀 것은, 옷에는, 어려움에 맞서는 아이들 곁에서 꿈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앞으로도 옷의 힘으로 아이들의 희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